

지금 이민교회의 포커스 다민족과 주류사회 그리고 연합

제 5회 이민신학심포지엄서 강사들 줄줄이 강조

“이제는 이곳에 있는 다민족을 향한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한인교회는 특히 중국 지도자들을 계속 길러내야 합니다”

‘신앙의 포괄적 적용과 실천방법’을 주제로 한 (제 5회 이민신학심포지엄)이 지난 30일 얼바인온누리교회(권혁빈 목사)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사회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그리고 신앙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시하며, 아울러 이민교회와 사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이민신학연구소의 주최로 매해 열리고 있다.

이날 1부 순서에서 4명의 트랙 강사들의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북미주 화교 교회성장 세미나를 통한 다민족 선교’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교회

에서 중국 화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경험한, 미주 한인교회가 중국교회와 전략적 선교제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한 목사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미주 한인교회의 교회성장과 선교에 대해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새로운 선교전략과 파트너십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 있어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중요한 사역으로, 무한한 선교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교회를 통해 선교적 사명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지도력을 위해 일정 부분 에너지를 투자하고 희생하며 섬기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리라 믿는



‘신앙의 포괄적 적용과 실천방법’을 주제로 한 (제 5회 이민신학심포지엄)이 지난 30일 얼바인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UCLA, USC, 칼 스테이트,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등 남가주 여러 대학에서 중국 차세대 리더 3만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이들에게 선교적 열정을 불어넣으면 향후 미래 선교적 투자 차원에서 막대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내다본다”면서 “또한 중국교회뿐 아니라 다민족 교회를 하나씩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역사적인 책

임이 한인교회에 있다. 조사 결과 다민족교회가 한인교회를 통해 배울 점은 선교적 열정, 새벽기도, 금요기도회로 나타났다. 한인교회에 흐르는 이러한 독특한 ‘코리아영성’을 알리는 사역이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는 “신앙의 성숙은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고 적용되는 생활화를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의 성숙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환경, 인권, 동성애, 지역사회 문제 등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교회와 교회간 연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실천은 개인적이고 수도적이며 수련적인 것을 넘어 의도적이고 운동적인 공동체를 통한 실천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토마스 맵기자

목회자들의 탈진, 그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교회에서 목회자가 사임하게 되는 요인은 도덕적 결함, 교회 갈등, 가족 문제, 질병 등 다양하지만, 의외로 이 가운데 많은 비율이 ‘탈진’이다.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탈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성장 전문가이자 목회 컨설턴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인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 칼럼에서 몇가지 이유를 짚었다.

첫째는 주7일 하루 24시간 대기 모



톰 S. 레이너

음 전화를 기다리거나 다음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는 갈등이다. 갈등 자체가 아

드이기 때문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몇몇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심지어 그들에게 주어진 쉬는 날조차 그들은 다

음 전화를 기다리거나 다음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셋째는 갈등이다. 갈등 자체가 아

나라 갈등을 해소하고 비난을 견뎌내는 그 과정이 목회자들의 탈진을 가속화 시킨다.

셋째는 기대감이다. 만약 목회자가 전지, 전능하며, 무소부재 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목회자도 사람이다. 교회 성도들이 가진 모든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목회자들에게 있으며 목회자들은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려 노력하다가 탈진해 버린다.

넷째는 절대 쉬려 하지 않는다. 레

이 박사는 “내가 아는 한 목회자는 교회에 밀려 드는 우편물을 본인이 모두 정리하다가 결국 3개월 뒤에 사임했다”고 예를 들었다.

다섯째는 친구가 없다. 많은 목회자들이 의미있는 우정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목회자일수록 탈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섯째는 자신의 은사와 관계 없이 모든 일을 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이것은 셋째로 지적된 기대감과도 비슷

한 항목인데,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목회자는 모든 일을 잘 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고 또 좌절한다.

마지막은 교회 밖의 삶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즐거움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지 않는다. 레이너 박사는 “이들이 탈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영신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창립 12주년 입당 감사예배

일시: 10월 6일 (주일) 오후 2:30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토랜스 선한목자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주년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신 넓고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새성전 안에서 특별집회를 갖게 되어 온 교회가 축복과 기적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흥성회와 입당 감사예배를 통해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라며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부흥성회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29
 10월 4일 (금) 오후 7:30, 10월 5일 (토) 오전 6:00, (토) 오후 7:30

예배안내

주일예배	금 요 예 배
1부 한어예배 08:00am	07:30pm
2부 영어예배 11:00am	새벽예배 (월-토) 06:00am
3부 한어예배 11:00am	주일학교 주일예배 11:00am
4부 영어예배 01:30pm	주일학교 금요일모임 07:30pm

토랜스 선한목자교회 Torrance Good Shepherd Church
 담임목사 김현수

253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Tel. 310)326-2001 | 310)989-4381

Map: Sepulveda Blvd., Crenshaw Blvd., 237th St., Western Ave., Lomita Blvd.

“러시아 반동성애법 올림픽 헌장에 위배 안돼”

러시아 반동성애법 소치 올림픽 앞두고 논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러시아의 반동성애법이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홍보, 전파, 선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시 벌금 혹은 구류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반동성애법을 갖고 있다. 이 법은 러시아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은 통과 직후부터 미국 및 유럽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이 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기 스포츠 스타들도 이에 가담했다.

또 8월 초 러시아 모스크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시위 차원에서 벌여 큰 논란이 일

었다. 그러자 러시아 출신이며 세계적인 장대높이뛰기 선수인 이신바예바는 이들을 비난하며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전통 결혼을 지지하며 “이런 퍼포먼스는 우리 나라(러시아)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우리 법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반동성애법이 올림픽을 앞두고 주목받는 이유는, 러시아 내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선수들이 친동성애적 홍보 활동을 러시아 내에서 벌일 경우, 구류, 벌금, 추방이 가능하며 국제사회에 스포츠 분쟁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IOC는 “러시아의 청소년 대

상 동성애 전파 금지법은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지 않으며 매우 적합하다(fully satisfied)”고 발표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일부 동성애자 스포츠인들은 “이 법이 우리를 제약할 것이다”라고 반발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 법은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지 성인들의 동성애를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IOC는 “올림픽 헌장은 인종, 종교, 피부색 등에 의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클로드 킬리 IOC 위원장은 “우리는 올림픽이 열리는 국가의 법에 관해 토론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올림픽 헌장이 존중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간섭에 영향받지 않고 러시아의 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1면으로부터 발음

스티브 황보 시장(라팔마 시)은 “다년간 한인교회를 섬겨왔고 백인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있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민교회가 헌신적으로 해외선교를 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각처에서 온 미국 내 타인종과 주류사회를 향한 선교와 소통 부분에선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 보다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상철 교수(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민족 사역이 서서히 전개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며 “라티노들을 위한 구제사역, 아시아 청년을 위한 장학사업, 기아로 인해 고통받는 소수민족을 향한 긍휼사역이 행해져야 한다. 이민교회 중 33%가 해외선교에 힘을

쏟고 있으나, 정작 이웃에 있는 다민족 선교성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들과 네트워크하고 사역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는 “한인이민교회 신학과 목회도 본질적으로는 한국교회나 미주류사회의 신학 및 목회와 다를 바가 없지만 이중문화권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위에서 신학과 사역의 이론과 실천 방법을 개발·발전시켜 가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2-3세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민은 많은 유렵교회들처럼, 주류사회와 교회에 창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주류교회 중 하나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WP, 무슬림 작가 반기독교 칼럼으로 논란

메시아로서의 예수 부인한 작가 레자 아슬란 글 게재

미 대표적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일요판에 한 무슬림 작가가 쓴 반기독교적 칼럼을 실어 비판을 자초했다.

포스트는 매주 일요일에 '~에 관한 다섯 가지 신화(Five Myths About ~)'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칼럼을 실고 있다. 그동안은 밀레니얼 세대나 자유지상주의자, 디트로이트 사태 등 특정 편향을 보이지 않는 주제들이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 26일자 칼럼은 달랐다.



레자 아슬란

이날은 '열심당원: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시대(Zealot: The Life and Times of Jesus of Nazareth)'의 저자 작가 레자 아슬란(Reza Aslan)이 '예수에 관한 다섯 가지 신화'를 논했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견지해 온 이

슬람의 시각에 기반한 기독교 해석을 이번 칼럼에서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열심당원' 책에서 예수를 '세속적 혁명가'로 그리다가 하면, 그가 사실은 구약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였을 것이라는 등 예수에 관한 성경 기록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내세워 기독교계의 큰 반발을 낳은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도 그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외아들이었으며, 열두 제자를 거느렸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 받았으며, 무덤에 장사됐다는 다섯 가지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2천 년여간

그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온 신화들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들은 충분하지만,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이 소박한 갈릴리 촌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에 영향을 줬다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는 아슬란이 스스로를 기독교 전문가로 소개하지만, 사실상 그가 해 온 연구들은 사실상 이슬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예수와 관련한 주장들은 기독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보다는 이슬람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런 그에게 또다시 지면을 할애해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워싱턴포스트지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공

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미디어리서치센터 비즈니스와 문화 분야 담당자인 덴 게이너(Dan Gainor)는 “워싱턴포스트는 기독교를 공격한 이력이 있는 작가를 통해서 아마 또다시 논란을 제초하기 원하는 듯하다”고 이익을 위해 논란을 활용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주요 언론들이 반기독교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들에게 이 반기독교적 작가는 매우 구미에 맞는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 작가에게 이만큼의 지면을 할애해 '이슬람에 대한 다섯 가지 신화'를 쓰게 하는 일은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며 기독교에 차별적인 태도 역시 비판했다.

“꾸준한 관심 통해 목회 돕는 영상설교 누구나 가능”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 주최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 개최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목회 환경 또한 변화의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오늘날, 효과적인 전도 수단 중 하나인 영상설교와 영상물 제작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LA 시크릿가든 식당홀에서 열렸다.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회장 과부한 목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강사로 지부 임원인 양경선 목사(남가주교협 총무)와 임인철 목사(한미장로교회 부목사), 한주식 목사(현

대설교연구소 소장)가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50여명의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해 영상 제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에 임했다. 이날 먼저 한주식 목사가 직접 영상설교를 함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양경선 목사는 파워포인트의 전반적인 소개와 제작에 대해, 임인철 목사는 파워디자이너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이밖에 강사들은 3D, 콜라주, 포토샵, 포토스케이프, 동영상 편집,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스마트폰 100%

활용법, 김포, 한소, 캠퍼시아, 무비메이커, BT(글자 데코), 오픈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영상제작 및 목회적용 방법에 대해 나눴다. 또 음향업체 레이저비전에서 나와 교회 음향과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양경선 목사는 “목회자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목회 활동에 다양한 도구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며 “꾸준한 공부와 노력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 목사는 '파워



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다.

포인트 목회자 교실'을 열고 있다. 교회와 관련해 공부 및 토론을 통해 더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에서는 나은 목회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주 1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설교 토마스 맹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바이블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성경원전 및 서양고전 연구원”은 그 이름을 “바이블 아카데미”로 바꾸고 이번 10월 7일부터 유인대학교 신학대학과 제휴하여 다음과 같은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강좌 소개

- 1. 월요일(저녁 7-9시): 성경희랍어 I**
희랍어 성경원전을 읽기 위한 희랍어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희랍어는 물론 희랍의 문화와 사상과 함께 희랍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희랍사상과 히브리사상과의 차이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강료: 3개월에 100불)
- 2. 화요일(저녁 7~9시): 사도바울의 희랍선교**
사도행전 16~18장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희랍선교를 당시의 사상적-문화적 배경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성경과 함께 희랍문화와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료: 무료)

■ **장 소** : The First Baptist Church
■ **주 소** : 760 S Westmoreland Ave. #14-16, LA, CA 90005 (8가 @ 버몬과 후버사이)
■ **전 화** : H. 213.386.6632 / C. 213.200.9174
■ **e-mail** : syngwonsuh@yahoo.com

강사 소개

서승원 목사 (Ph.D)

학력
1972년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수학과 졸업
1974년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미학과 졸업
1977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
1977~1991년 : 14년간 희랍국비장학생으로 국립 아테네 대학교에서 고대 희랍철학, 역사, 종교, 문학 등 고대희랍문화전반에 관해 연구
1991년 : 동대학교에서 “플라톤의 국가, 교육 예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 취득 (Summa Cum Laude)
1999년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 입학
2000년 : 교수들의 추천으로 2년간의 Full Scholarship을 받고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로 전학
2002년 :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신약학 전공) (재학시 학생 및 교수들을 지도)

경력
1992년 3월~1994년 7월: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고대희랍철학, 문학 및 희랍어 강의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비로소 강의다운 강의를 듣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1995년~2011년 : 월드미션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미주총신대학교 등에서 신학, 철학, 희랍어, 히브리어 강의. (학생들로부터 한국제일의 신학자라는 호평을 받음)
2013년 현재 : 유인대학교 신학대학장 및 Bible Academy 원장

남가주 왕의귀환컨퍼런스

“이스라엘에 유대인 가득할때 주님 오실 것”

윌터 카이저 박사 “마지막 날” 컨퍼런스

남가주 왕의귀환펠로우쉽(국제 코디네이터 박홍수 목사)이 구약학의 대가로 잘 알려진 윌터 카이저 박사(Walter C. Kaiser Jr.)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성경적 “마지막 날(End Time)”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26-28일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개최했다.

윌터 카이저 박사는 미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

든코웬신학교 명예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6일 첫날 저녁에 열린 집회에서 박홍수 목사는 윌터 카이저 박사에게 소개하면서, “많은 신학대에서 이분의 책이 읽혀지고 있다. 성경의 30% 이상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덮여지고 있다. 이제는 성경을 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윌터 카이저 박사는 예레미야서 32장을 본문으로 한 강연에서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명하는 곳에 보내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씨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모두 발언한 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국가가 없다가 1948년 재탄생하게 됐다. 당시 유대인 인구는 6만 5천여명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6백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



윌터 카이저 박사

다. 이는 전세계 유대인들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가득차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라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토마스 맹 기자

비올라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의 北 어린이 향한 사랑

미주겨레사랑, 리차드 용재 오닐 자선음악회 개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적 비올라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의 아름다운 연주가 이민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리차드 용재 오닐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적 비올라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의 아름다운 연주가 이민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미주겨레사랑(대표 임덕순 장로)은 28일(토) 저녁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용재 오닐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리차드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은 8곡의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청중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날 탈북자 출신 음악가 김옥 씨의 아코디언 연주, 남가주 연세성가대의 합창이 있었다.

임덕순 장로는 인사말에서 “정치, 경제, 사상, 이념 등을 초월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을 바라며 미주겨레사랑과 용재 오닐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돼 이번 자선음악회

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재 오닐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어머니와 아일랜드계 조부모 사이에서 자라,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비올라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았다. 이후 미국 클래식 최고의 영예 애버리 피쳐 커리어 그랜트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주자로 급부상했으며, 현재 UCLA 최연소 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주겨레사랑은 북한 전체 어린이 중 25%가 발육부진,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45%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돕는 목적으로 세워진 사역단체이다. >미주겨레사랑: www.loveone-world.org

토마스 맹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오바마, 이란 대통령에 아브디니 목사 석방 촉구

미-이란 대통령, 34년 만에 첫 전화통화

지난달 28일 미국-이란 대통령 사이에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역사적인 전화 통화가 이뤄진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출신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Saeed Abedini·32) 목사의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대통령과 대화를 재개했다. 그는 이란 대통령과 15분 동안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이란에 억류된 3명의 미국 시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들 3명은 실종된 미국인 로버트 레빈슨,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 CIA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아미르 헤

르마티이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오바마는 “우리는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우하니는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물렀다. 오바마는 출국길 JFK 케네디 공항에 있던 그와 대화를 나눴으며, 주제는 대부분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내용이었다.

오바마가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에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브디니 목사의 아내 나흐메는 “1년 전 남편이 수감된 이후 들려온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에드를 비롯해 이란에 있는 3명의 미국인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

해 매우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 같은 진전은 온전히 기도의 응답이다. 로우하니 대통령이 사에드가 집에 돌아와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를 석방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최근 이란에서는 신앙 때문에 수감됐던 약 80명이 석방됐다. 사에드 역시 곧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와 로우하니는 각각 존 케리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은 다음달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오클라호마 4개 기독교 대학

동시에 오바마케어 소송

오클라호마 주의 4개 기독교 대학이 오바마케어의 낙태피임조항에 반대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던내저린대학(Southern Nazarene University), 오클라호마웨슬리안대학(Oklahoma Wesleyan University), 오클라호마침례대학(Oklahoma Baptist University)과 중미크리스천대학(Mid-America Christian University)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대학의 소송을 변호하게 된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기독교 대학들은 그들의 신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케어의 낙태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신앙에 의거해 반대할 것인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

한다”고 비난했다. 오클라호마웨슬리안대학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4개 학교보다 앞서서 지난 해에 소송을 제기한 루이지애나 칼리지의 조 아퀼라드 총장은 “제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종교적 살인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제네바칼리지의 켄 스미스 총장은 “도덕적으로 거부되어야 마땅한 치료를 포함하는 의료보험을 우리에게 강요할 권리가 정부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美 최대교회는레이크우드교회, 총 교인 4만3천명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역하는레이크우드교회가 <아웃리치 매거진> 집계 2013년 미 최고의 대형교회에 선정됐다.

아웃리치 매거진 2013년 발표
노스포인트·윌로크릭·새들백
100대 교회 리스트 올라

미국 최대의 교회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무하는레이크우드교회로 총 교인 수는 43,5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교회는 2007년 이래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었다.

매년 미국의 대형교회 100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100개를 집계해 발표하는 아웃리치 매거진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교회 규모 면에서 2위는 앤

디 스탠리 목사가 사무하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교회(조지아, 30,629명), 3위는 빌 하이벨스 목사의 윌로크릭교회(일리노이, 25,743명), 4위는 페리 노블 목사의 뉴스프링교회(사우스캐롤라이나, 23,055명), 5위는 크리스 호지스 목사의 하일랜즈교회(앨라배마, 22,184명), 6위는 릭 위렌 목사의 새들백교회(캘리포니아, 22,055명)였다.

한인교회로서는 유일하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천대 성도 수를 유지하며 최고 50위까지 올라갔던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올해도 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한인들에게 익숙한 교회로는 T.D. 제이크스 목사

의 포터스하우스가 16,140명으로 20위, 스티븐 퍼터 목사의 엘리베이션교회가 13,232명으로 28위에 올랐다.

한편,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는 미시간에 위치한 트라이엄프교회(솔로몬 킨로크 목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뉴스프링교회(페리 노블 목사), 뉴멕시코의 레거시교회(스티브 스모더맨 목사), 플로리다의 셀러브레이션교회(스토벌 워스 목사), 인디애나의 노스뷰교회(스티브 포 목사) 등이 1~5위로 올랐다. 이들 교회는 지난해에 비해 약 49%~50%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형 기자

어머니의 기도

아들이 살인마 되는 것 막았다

총기 사고가 빈번한 미국에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4일 밤 9시 경, 포트워스의 한 맥도날드 지점에 총기 강도가 들어와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이 맥도날드에는 15명의 직원과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한 고객들이 있었다.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이 강도는 직원과 고객들을 협박하기 위해 최소 5번 이상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다. 이에 이 강도는 당황해서 맥도날드 매장 밖으로 뛰쳐나가 시범삼아 방아쇠를 다시 당겼고, 그러자 총알이 발사됐다.

이 강도는 총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와 방아쇠를 당겼으나 역시 불발됐다. 그러나 다시 밖에서 방아쇠를 당기자 총이 발사됐다. 그리고 곧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범인인 제스틴 조셉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을 직감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가족들과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 덕에 총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어머니는 “어젯밤, 제스틴을 지켜 달라고 기도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었다”고 간증했다.

김나래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공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마드윈)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파노라마 성경연구 세미나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파노라마 성경연구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잠이 오십니까?
아직도 성경을 완독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 성경의 산맥과 광맥을 찾아주는 성경연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 쉬워 질 것입니다.

- 대 상 : 성경에 관심있는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장 소 : 남가주 선린교회 (2836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일 시 : 2013년 10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 7PM (15주간)
- 강 사 : 강기운 목사(남가주 선린교회시무)
- 연락처 : 213.949.2797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

창세기 21:1-2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최근 한 공영방송에서 이슬람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기독교에 대해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연합기구와 여러 목사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무조건 나쁘고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과 과정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연구하면서 분석·비판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정통한 구원의 교리이며 진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言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1-3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갔고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며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한 자녀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86세쯤 되었을 때에 사라는 남편에게 자기가 시집을 때 데리고 온 애굽 태생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후손을 잇게 하라고 주었습니다. 사라가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여 자기 아들로 삼아 남편에게 미안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 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행의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안 믿는 세계의 풍속을 흉내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약 4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불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後繼者)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 몇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하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는데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지켜보니 이삭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열네 살 차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속으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더라면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평생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내 신세가 망쳐졌다고 생각해서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를 본 사라는 가슴이 찡찡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 합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 그보다도 첫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갈과 함께 내어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나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이 새기 바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로 태어난 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마엘이 이룬 나라가 아랍이 됐고 그 아랍이 여러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랍 계열은 42개의 크고 작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랍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거의 4천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육적인 후계자의 만행(蠻行)

AD 571년에 메카에서 과부의 유복자로 태어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해 추장 집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을 도우며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팔레스타인이나 광야나 시리아까지 행상을 했습니다. 행상을 하다가 26살 때 한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 과부의 이름은 카디아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 죽고 딸 한명만 살았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전도를 받으며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금껏 쫓겨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면서부터 들어왔었기에 서자 혈통의 자손으로서 서러움과 불만이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능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천사 가브엘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예언자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예언을 한다고 이말 저말을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의 나고 자람을 아는데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그를 도리어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메카에서 쫓겨나고 메카라는 작은 도시로 들어가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합니다.

고향 메카에서 쫓겨난 그는 AD 622년 메카로 옮겨 아내의 도움으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유급 군대를 가지고 기독교와 유대교

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정없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종족들까지 죽이면서 630년에 큰 군대를 조직해 훈련시켜 자신을 쫓아낸 메카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그 이듬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571년에 태어나 633년 6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만든 코란을 사용합니다. 코란은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뜻은 아랍어로 복종과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가르침에 복종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은 거역하면 죽이고 복종하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코란은 아라비아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14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90장은 메카시대에 이 사람이 쓴 것이고 24장은 메디나에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코란의 내용은 90장은 메카 시대에 받은 계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시가 아니라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알라신의 유일성을 주장했고 사람은 알라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과 단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순례도 해야 한다는 것, 성월이라고 해서 7월15일을 전후로 해서 한 달간 알라신만 경배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나 시대에 기록된 24장은 예배 단식 순례 성월을 지키게 하면서 민법과 형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작두에다가 손목을 잘라 버립니다. 이 율법은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만든 동기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기에 영터리 종교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속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세상 많은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인의 후손(後孫)

갈라디아서 4:22-31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중에 계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중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지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에 이끌려 하늘 나라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코란에는 죄를 용서받는 대안이 없습니다. 불교나 어떤 종교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불교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지금 스님으로 예수 믿고 신학을 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 모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창대케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마엘의 신앙을 길들이기 위해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세력을 통해 교회들 그 손아귀에 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3년반 동안 붙여 진짜와 가짜를 저절로 구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구원얻을 사람을 위해서라고 다니엘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요 그분을 통해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성령받게 하심을 보아 참 구속의 교리이며 구원의 진리임을 알아 목숨걸고 이 복음을 전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미국 기독교일보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p> <p>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p> <p>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p> <p>9월 9일 개강</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주성결대학교</p> <p>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p>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이 능력이다

얼마 전 중국선교 길에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다. 20여명의 어린아이들이 웅기웅기 모여 원장님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그 고아원은 지역내 다른 고아원에 비해 규모도 작고 시설도 보잘 것 없었으나, 그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고아원으로 통했다.

약 한시간 정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비결이 궁금해 물었더니 원장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건 아마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에 따르면, 고아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열악한 환경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불편함도 아니었다고 한다. 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다른 아닌 ‘잊혀짐’에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요 아픔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 친구와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는 의식을 늘 하게 되고,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원장님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심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 부모가 해주는 것처럼 준비하고, 옷도 부모가 입히는 것처럼 해주면서 저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것이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한가지를 더 시도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국가 안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안아주며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저들이 점점 원장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잊혀지고 버림 받았다는 상처와 아픔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비참함도 사랑 앞에는 분명히 녹아지게 되었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사는가”이다. 이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할 때 가능하다. 이 확신은 바로 사랑받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사랑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이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에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나같이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가장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아니겠는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됐고, 내 삶의 수준이 달라져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뿌려야 한다. 비록 받아들이 준비가 안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뿌리고 심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의 밭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사랑의 줄기가 솟아오르게 되었다. 한 인생의 회복과 한 사회와 국가의 회복은 바로 이 사랑을 심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목사

강도의 소굴인가 예수님의 집인가

만사에는 양면성이 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고 채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교회는 모름지기 교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사명도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2천여년 전 유대왕인 헤롯은 40년에 걸쳐 백성의 오랜 숙원인 성전 건축을 위해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리고는 본국인인 물론 멀리 외국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해 넓은 뜰에서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거래하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환전하도록 장소도 마련하는 등 편리하게 해놓아 백성들을 만족시켰다.

그러던 어느날 예수님이 이곳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 충격적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내 집(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책망하시면서 뜰에 있는 제물로 사용할 온전치 못한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려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엎으셨다.

헤롯이 처음 이 성전을 지은 동기가 신앙심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치적 야심 때문이라는 점도 원인을 제공했고,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에 결탁,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갈취해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것이다. 오죽하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을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함으로써 “강도의 소굴”이라 책망받을 교회가 없을까 싶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과 안디옥교회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롤모델이다. 그 특징은 매우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약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힘으로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서로 ‘내것 내것’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부상조하는 신앙공동체를 이뤄나갔다.

또한 칭찬받는 지도자들을 뽑아 헌신의 선두에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았다. 이들의 모임은 만가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었고, 바로 이러한 자세가 후세의 많은 신앙인들의 본이 됐다.

내가 아는 한 집사님 가족은 이민 온 뒤 초대교회 같은 곳을 찾아 오래도록 헤맸다고 한다. 우선 목숨걸고 목회하는 목회자를 찾았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 통달하며 책을 많이 읽고 영감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 교인들과는 눈물과 웃음을 같이 하며 천당까지 같이 가실 그런 목사를 말이다. 교회 분위기도 살았다. 걸핏하면 목

사를 내뿜는 장로나 터줏대감이 없는 교회, 친척이나 어느 한 지방 사람들이나 특정 직종인들이 중심이 돼 친교하는 곳을 피하다 보니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기도 가운데 번뜩이는 영감을 받았다.

“OO야, 내가 원하는 목회자나 교회를 찾지보다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 이에 그는 “네, 주님 맞습니다”고 대답하고 그때부터 가능성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나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결심하고 준비기도를 많이 하면서 먼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데 치중했다.

낮 예배에는 정장을 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적어도 15분 전에 교회에 와서 준비기도를 드리고(차원이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오고) 목사님은 성경의 요묘한 진리를 현실에 맞게 짚고 눈물이 섞인 말씀을 지루하지 않게 끝내도록 했다. 식사 후에는 전 교인이 성경공부를 하고 각 부서활동을 했다. 주중에도 노인 사랑방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계속되도록 했고 감사와 웃음, 칭찬, 섬김 등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내세웠다.

그러자 교회는 새롭게 탈바꿈 하면서 “신바람 나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로 소문나 사방에서 새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출석인원 2백명이 넘으면 분가시키기로 했고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천국은 힘쓰는 자의 것이고 예수님의 집은 예배와 섬김이 있을 때야말로 생명이 있다.

현순호 목사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은혜 성로원 교회에서 함께 동역 할 풀타임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찬양인도를 하실 수 있고 하루 3시간 이상 기도에 열심이 있으며, 개척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역할 분을 찾습니다.

신청 자격: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 및 신앙고백서
3. 학력증명서
4. 목사 안수증 사본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감: 2013년 10월 15일
Email : jcjohn@hanmail.net
주소 : 850 S.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은혜 성로원 교회 송성엽 담임목사
850 S.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 381-9490
- 등록비 : \$20(필수)
- 회 비 : \$1200이상(성도 1인당 1불씩)

제출서류

입회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3년 10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총무 양경선 목사 (213)255-1725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제15조)
(2) 수석부회장: 자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목회자(제16조 2항)
(3) 부회장: 목회경력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제15조)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1)이력서 (2)교단추천서 (3)목사안수증명서 (4)교회주보 (5)발전기금(캐시어체크)
* 후보자 본회 발전기금: 회장 \$5,000 수석부회장 \$3,000 부회장 \$1,000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남가주 교협 회의실
- 공천위원회 모임
일 시 : 2013년 10월 2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남가주 교협 회의실
(1) 공천위원: 교협 회장단 추천 6명, 이사회 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2)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10월 23일까지)
① 교단장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② 전화번호 및 이메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회장: 진유철 목사 ■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office@thecck.org www.thecck.org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Are you working now?
당신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Yes, I am working.
네, 일하고 있습니다.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십니까?
▷I work at the book store.
서점에서 일합니다.
▷What do you do there?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I am a salesperson.
판매원입니다.
▷Do you sell the books?
책을 파시나요?
▷Yes, I do. I sell the books.
네, 그렇습니다. 책을 팔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working?
당신은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I am working in a hospital.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nglish (중급 영어)

Jesus, was at the house of wedding feast in the village of Cana in Galilee. Jesus and his disciples have also been invited and were there. When the wine was all gone, Mary said to Jesus, “They don’t have any more wine.” Jesus replies, “Mother, my time hasn’t yet come! You must not tell me what to do” (John 2:1-4).

사흘이 지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결혼 잔치 집에 와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갔다. 포도주가 모두 없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고 말하자 예수님은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 다. 어머니는 제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하고 대답하셨다. (요2:1-4)

English (고급 영어)

Augustine met with Bishop Ambrose and freed from Manichaeism and came to faith in Christ. His mother Monica prayed a lot for her

son to come back to God. He was persuaded by the Word of God: “So behave properly, as people do in the day. Don’t go to the wild parties or get drunk or be vulgar or indecent. Don’t quarrel or be jealous. Let the Lord Jesus Christ be near to you as the clothes you wear”(Roman 13:13-14).

어거스틴은 암부로시우스 감독을 만나 마니교로부터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됐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많이 기도해 왔다. 그(어거스틴)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됐다.

“그러므로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롬 13:13-14).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한솔종합보험(주)

Hansol Property & Casulaty Insurance

[Hansol Life & Annuity Insurance]



생명보험과 연금플랜에 대한 모든 것

(A) 생명보험(Life Insurance)종류와 활용

(1) 종류

- * Low Cost Term Plants(Level& ROP)
- * 저축성생명보험
 - a) Guaranteed UL plans
 - b) Guaranteed Index UL plans

(2) 생명보험의 활용

- * Estate Planning & Retirement
- * Business Planning
- * Tax-Shelter Planning(Key man Ins)
- * Premium Financing, etc

30여개의 A+ 생명보험회사 취급

(B) 연금플랜의 종류와 상품

(1) 취급 범위

- * 은퇴계획 Planning 단기, 중기, 장기 Planing
- * Social Security Maximization Planning
- Restricted Application, File & Suspend, Combo

(2) 취급 종류

- * 사업주 주도의 Planning
 - a) 401(K), Simple, SEP, 403(b), 412(e), Roth 401(K), Solo 401(K)
 - b)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Planing
- * 개인 Planning
 - a) IRA, Roth IRA

(3) 취급 상품

- * Fixed Annuity - CD Type 저축
- * Immediate Annuity, 가입직후 평생수령
 - a) 저축목적 상품 - 5년, 7년, 10년, 12년, 14년
 - b) 연금수령목적상품
 - c) Guaranteed Lifetime Income(평생수령)
 - d) Bonus(4%, 6%, 10%) 4.5% compounding
 - f) Without Fees, With Fee
- * Index Annuity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혜택

- * 만 65세가 되셨습니까?
- * 메디케어 A,B만 가지고 계십니까?
- * 메디케어, 메디칼 동시에(Full Dual-Eligible Beneficiary)가지고 계십니까?
- * 이번에 파트B를 새로 받으신 분,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한 경우나
- * 직장보험에서 탈퇴한 경우가 있습니까?
- * 파트 A가 없거나 이번에 파트 A 를 새로 받으셨나요?
- * 메디케이드(Medi-Cal) 혜택이 이번에 Cost of Sharing(대략 \$699)으로 바뀌셨나요?
- * HMO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나, 당뇨, 심장질환 및 신장투석 등으로 본인 부담금이 많으세요?
- * 장애자로서 메디케이드(Medi-cal)혜택은 있지만 메디케어 혜택이 필요하세요?

20% 보충보험(Supplement)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

시니어 우대플랜(Advantage-Part C)

보험료없이 20%와 약이 커버(HMO, PPO)
Medicare에서 커버하지 않는 다른 Benefit도 제공합니다.

처방약보험(Part D)

복용중인 약이 다 커버되는 보험회사를 찾으드립니다.

처방약보험료가 부담 되십니까?

저소득기준이 맞으면 약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TRA HELP”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문의 800.300.0703 / 213.487.4900

사업체 보험 (BUSINESS INSURANCE)

- 화재보험, 도난보험
- 초과액 보상보험(Commercial Umbrella)
- 기계보험(Boiler & Machinery)
- 고용관련 배상책임보험(EPL)
- 지진 홍수 보험
- 건설공사보험(Builder' s Risk)
- 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상업용 자동차 보험(Commercial Auto)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종업원용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개인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

개인 집 보험(Home Insurance)

취급보험회사 (Insurance carriers)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Hansol 한솔종합보험(주)
 Since 1977

“창조과학은 하나님을 ‘증명’ 아닌 ‘증거’ 하는 것”

제2회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

한국창조과학회(회장 이은일 교수) 주최 '제2회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가 지난 30일 서울 반포동 남서울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창조과학을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선교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창조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강 설교는 '창조주 하나님(창 1:20-25)'을 제목으로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가 전했다. 화 목사는 "창조신앙이 회복되고 드러나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여전히 풍요롭지 않은 인간의 영혼의 부요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한다. '등급'과 '진화'를 이야기하는 세상과 달리, 목회를 하면서 이것

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인지를 체험하고 있다"며 "창조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선하심과 지혜로움에 따라 이뤄졌고, 창조하신 무엇을 봐도 싫증나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창조과학의 대부' 김영길 총장(한동대)은 '강연 같은 축사'를 전했다. 김 총장은 "한동대학교에서는 창조과학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4만여 대학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세계관 위에 지식을 쌓아올리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는 과학자이지만, 과학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과학은 하나님



김영길 총장 한정국 선교사

께서 이미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하나 하나 발견하는 것일 뿐으로, 과학은 근본적으로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데도 진화론에서는 창조가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진화론은 아직도 '진화의 법칙'이 되지 못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창조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이 아닌 '증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강연 '선교와 창조과학'은 한정국 선교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가 맡았다. 한정국 선교사는 "성

경에서 모든 세상의 고리를 다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요점, 중요한 부분만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성경의 주요 키워드를 예수님과 구원, 선교로 풀고 싶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도리를 성경으로 계시하길 원하셨다면,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8만 권'이 됐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한 선교사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뿐 아니라 이성까지도 거둬내게 하셨으리라 믿는다"며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계시할 수 있다면 일반계시, 창조과학의 풍성한 자료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서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좀더 지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국 선교사는 "모든 선교사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역자들이므로, 그분으로부터 선교지로 보냄받

은 모든 선교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계 곳곳에는 진화론이 다수 학교를 점령할 수 있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창조과학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신을 갖고 △우선 선교사 가족부터 창조과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은 가족이 창조과학의 전도사 역할을 하여 현지에 창조과학 관련 단체가 있으면 연대하고, 없다면 창설하는 노력과 연대를 가져야 하고 △현지의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와 연대하여 한국처럼 '창조과학회'를 조직하며 △각 국가마다 창조과학회 멤버십 제도를 두고, 의식 있는 선교사들을 자원봉사자로 동원하여 창조과학을 펼치고 △현지에서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교사들을 통해 창조과학의 우수성을 나타내며, 학교마다 창조론 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대용 기자

성은교회, 43주년 맞아 부흥선교확장 감사예배 및 임직식

당회장 장재효 목사, 설교 통해 '모범 교회의 조건' 설명



임직식 진행 모습.

서울 송파구 성은교회(당회장 장재효 목사)의 창립 제43주년 부흥선교확장 감사예배 및 임직예식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는 성구를 주제로, 9월 29일 오후 3시 동교회 대예배당에서 개최됐다.

1부 예배에는 구미 성은교회 객역 목사의 사회, 안양 동현교회 박진술 목사의 대표기도, 신평 성은교회 조영근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당회장 장재효 목사가 '모범 교회의 구성원'(살전 1:1-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재효 목사는 설교에서 "사도 바

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으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교회로서 잘 서 갔다"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내세의 소망' 세 가지가 모범교회로서 꼭 갖춰야 할 조건이다. 특히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의 소망'은 신앙인들에게 환락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낼 힘을 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이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받아들이면 믿음의 역사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되는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며 "성령에 이끌리어 쓰임받고자 하는 임직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교회에 천국이 이뤄지고, 모범적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2부에는 장로 장립, 집사 안수, 명예권사와 권사 취임식이 진행됐다. 장재효 목사의 인도에 따라 임직자들은 서약을 했으며, 안수위원들은 안수를 했고, 안수위원과의 안수례, 당회장의 공포와 취임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양병래·방영수·최중수 장로,

라기석·이근연·고장순 안수집사, 반숙자·김유은·박옥자·김인순·김인레·이영기 등 총 32명이 임명됐다.

한편 성은교회 당회장인 장재효 목사는 현재 팔순이 된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고령을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려는 의사를 성도들에게 표명했음에도, 성도들이 "장재효 목사님의 지속적인 시무 당위성에 대한 결의서"를 발표하면서까지 만류해 계속 남아 있게 됐다. 전 성도들의 결사반대로 사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장재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수) 총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신학대학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성경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 한국일보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민감동 그랑프리 대상(종교 지도자 부문)을 받기도 했다. 그의 목회 일대기는 굿뉴스미션워싱턴 필름(대표 이태봉 목사)에 의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유튜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오정현 목사 "섬김 고민하면서 새 예배당 입당해야"

29일 주일예배서 '섬김이 먼저입니다' 제목으로 설교



오정현 목사

사람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29일 복귀 후 두번째 주일을 맞아 '섬김이 먼저입니다(요 13:4-14)'라는 제목으로 예배 설교를 전했다.

복귀 첫 주일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것이 복되다(요 13:1-7, 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오정현 목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 대해 또다시 이야기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실천은 마지막까지 섬김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며 "지난 35년간 사랑의교회가 잘 섬겨왔지만, 우리도 모르게 섬김에 대한 생각이 굳어졌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오 목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와 저 자신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이 시대 앞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 참된 섬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길 바란다"며 "새 예배당도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서 입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지난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처럼, 신학도 다르고 교단도 다를 수 있지만 섬김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신비 아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눈을 열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님은 중심을 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고 선생이셨지만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었다"며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을 때 '내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고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우리는 온 몸을 씻김 받았지만, 매일 더러워지고 누추해지고 오염되는 부족한 존재"라며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 목사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순한 양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 분노가 생기고 한국 사회에는 곳곳마다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며 "분노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아무리 분노가 에너지를 일으킨다 해도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섬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목사는 "우리가 섬김의 마음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분노의 에너지를 섬김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며 "이러한 섬김에 있어 예수님께서 가뭇 유대의 발도 씻겨주셨듯, 자기 마음 맞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주일간 제11차 특별세례부흥회 '더욱 사랑, 끝까지 사랑'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화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29회 HYM,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제 29회 남가주 청년연합집회가 지난 21-22일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열렸다.



더글라스 김 대표

제 29회 남가주 청년 연합 집회 (대표 더글라스 김, 이하 HYM)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오후 7시에 남가주 동신교회(손병렬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 강사는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석훈 목사가 초청돼 서게 됐으며, 찬양 인도는 주님의빛교회에서 성가지휘를 하고 있는 송민우 목사가 맡았다.

‘거룩한 산 제사(Living Sacrifices)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더글라스 김 대표는 “로마서 12장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뤄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금하게 하고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이민 땅에 살게하신 이유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잃어버린 모든 민족의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이 돈

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말씀을 전한 서석훈 목사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 발에 새겨야 한다”며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힘써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귀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씀시간이 지나고 청년들의 결단의 시간이 이어졌다.

HYM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Here I am)”의 첫 글자 ‘H’와 Young Christian 에서 첫 글자 ‘Y’, Movement의 첫 글자 ‘M’을 조합한 것이며, 남가주 청년의 부흥을 꿈꾸며 연합, 각성, 헌신, 영적부흥을 목표로 시작된 1.5세 기도 무브먼트이다. 지난 99년 베델한인교회에서 창립된 이래 매년 2차례 부흥집회를 열고 있다.

또한 HYM은 이민교회의 미래는 청년의 영적 각성과 헌신에 달려있다는 확신 아래 연합 예배를 개최, 성령 체험을 받아 하나님 임재하심과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청년 공동체가 없는 교회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숫적, 영적으로 미약한 교회 청년 공동체가 강건해져 이민 교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신실한 일군으로 성장을 돕는 데 비전을 두고 있다.

토마스 맵 기자

BIZ

아주관광, 독립계약 가이드제 향소심 승소



(사진 오른쪽)박평식 아주관광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주 향소 법원이 한인 관광가이드가 한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 한인 가이드는 지난 2007년 아주관광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패소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받아 들어지지 않았다.

가주 향소법원은 지난 27일 “관광 가이드는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업소와 가이드 간에 고용주와 직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부당 대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박평식 아주관광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노동법 소송(B230858, B232815) 향소심 결과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노동법 소

송과 관련해 타운내 사업주를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박평식 아주관광 대표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아주관광이 여행 관련 노하우뿐 아니라 회사의 노동법 관련 정책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임을 입증해서 기쁘다. 앞으로 가이드 분들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평식 대표는 또 “그동안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0% 패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평소 대비를 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타운내 비즈니스 사업주들에게 확산되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의 빛 선교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말-토) 새벽기도회
저녁 오후 7:30(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org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388-2105

박승부 장로 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출,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213) 381-7273/213)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내전 전번)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양,성경학교노년아,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청운교회
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간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텔레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선(Controlling)
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인을 복음화하며, 이민자정착을 위하여,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베이나 및 수양관 사역
예리문의 환경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전길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신부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니/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말예배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45 / 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4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투스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 (다누리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움)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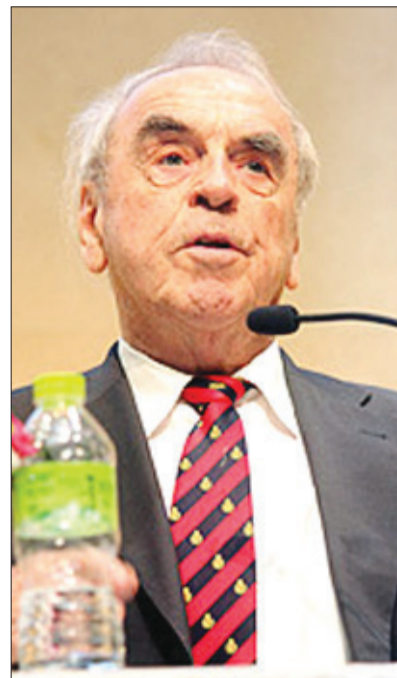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분반)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예배와 교육 사이, 신앙 끊어져... 프로그램만 즐비”

몰트만-은준관 박사, ‘참된 희망, 우리의 미래’ 신학 컨퍼런스 강연



위르겐 몰트만 박사



은준관 박사

몰트만 박사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미래’ 말해야”

은준관 박사 “두 가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소장 이태형)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위르겐 몰트만 박사(독일 튀빙겐대 석좌교수), 은준관 박사(실천신대 설립자) 등 석학들을 초청해 ‘참된 희망,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1일 오전 서울 서초교회(담임 김석년 목사)에서 신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희망의 하나님과 우리의 미래’를 제목으로 발표한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희망의 하나님, 이 말은 유일무이한 말이다. 절대적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신은 많은 종교들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바”라며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 우리 앞서 계시고 우리를 앞서 가시는 희망의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몰트만 박사는 “기독교 신앙은 온전하고 완전한, 확실한 희망이다. 앞으로 향하는 것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 속에 있는 삶”이라며 “미래는 기독교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핵심 요소다. 모든 성화(聖化)들이 그려지는 곳에 쓰이게 되는 새벽 여명의 황금색과도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희망이라야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몰트만 박사는 “믿음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자신을 펼치는 것”이라며 “이 기대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경험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몰트만 박사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 그려 보는 상과 상상들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경악할 만한 묵시론적인 것들인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이라며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원초적이고 정통성 있는 미래에 대한 기독교인의 기대는 그러한 종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독교의 종말은 오히려 시작과 관계가 있다. 참 생명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시작과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희망의 신학’을 말하기 시작한 1954년 이래로, 우리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우리에게 이미 현존하는 미래를 의미한다. 언젠가 과거가 되어버릴 미래가 아닌, 그 미래가 현재로 머무르게 되는 미래다. 우리가 운데 계신 성령님은 오고 있는 그리스도나

라의 실재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준관 박사는 ‘세상에 희망을 여는 공동체-한국교회 희망의 프로세스’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은 박사는 “우리 모두 희망을 노래하지만 속으로는 값싼 희망의 노래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래서 48시간마다 한 명씩 자살을 선택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생명조차 담보내지 못하는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허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은 박사는 “우리는 지금 피나는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다. ‘구도자 예배’에서, ‘문화선교’에서, ‘영성운동’에서, ‘셀(Cell) G12’ 같은 ‘소그룹 운동’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이 모든 시도들은 소중한 몸부림”이라며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믿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신앙공동체인 교회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따라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 종말론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 보아야 한다”며 “교회는 본질상(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 존재로의 인침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응답하는 종말론적인 ‘장’이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몰트만 박사 등이 호소하는 ‘부활을 축하하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희망의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몰트만 박사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 그려 보는 상과 상상들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경악할 만한 묵시론적인 것들인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이라며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원초적이고 정통성 있는 미래에 대한 기독교인의 기대는 그러한 종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독교의 종말은 오히려 시작과 관계가 있다. 참 생명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시작과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 박사는 “그 결과 오늘 한국 교회에는 파편화된 프로그램만 즐비하다. 한국 기독교 신앙은 많은 상품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분열된 신앙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적 문맹’이 되고 말았다”며 “한국교회의 미래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예배, 교육, 교제, 선교라는 성서적 신앙체계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고 응답하는 종말론적 통로로 신학화하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와 은준관 박사 등을 초청한 신학 컨퍼런스가 서초교회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의미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11)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단 마르시온 때문에 정경화 작업(canonization)이 시작된 2세기 중엽부터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 점을 의심하는 학자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곧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는 지금까지 헬레니즘이란 단어의 정의나 뜻하는 바 또는 그 연유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밑에서 언급할 생각이다. 그런데 샌더스 박사의 견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대 희랍과 로마시대의 시기적인 구별에 대해서 미리 말해둔다면 BC 8-6세기를 고졸기(Archaic Period), BC 5-4세기를 고전기(Classical Period), BC 323-30년을 헬레니스틱시대(Hellenistic period), BC 1세기와 AD 1세기를 희랍로마시대(Greco-Roman period) 그리고 AD 2-5세기를 제국시대(Imperial period)라 부른다.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헬레니즘의 영향은 헬레니스틱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만일 제3복음서의 저자를 누가라고 하게 된 것이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일이 좀더 일찍, 다시 말해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보다 강할 때인 1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뒤인 2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독일 튀빙겐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소위 종교역사학파에 속한 학자들이 누가복음은 사도바울과 베드로의 화해를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그 저작연대를 2세기 초



서승원 목사

로 보았으나 지금은 이런 견해를 수용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그것이 1세기 말에 기록됐다는 의견이 학자들 간에 지배적이다. 그리고 샌더스 교수의 말대로 희랍인들이 구약의 저자들에게 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개인주의의 한 증거라기보다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샌더스박사는 더 나아가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분의 강연취지와 무관한 것인데,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충분한 사전 연구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학자는 Harvard에서 가르친 바 있는 케드버리(Cadbury)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누가의 문체 속에는 그가 의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결여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가 그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이 말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골 4:14)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리버럴한 학자들의 상당수가 제3복음서의 저자가 의사 누가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수주의 학자들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다. <계속>

[새벽강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

본문: 사9:16~25

여름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 형제에게 '우리 어머니가 이곳 출신이니 부디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간청해서 결국 그가 왕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같은 세겜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비멜렉은 끔찍한 골육상잔의 비극을 저지르고 맙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행히 막내 아들 오담은 살아남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오담을 통해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진모 목사
시온연합감리교회

가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타인을 위해,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요구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 편하자는 생각과 무관심 때문에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무릇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인정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일, 남편의 일이라고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의 아픔을 돌본다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백성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니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얼마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만 아는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에 모두가 고통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면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되고 의로우냐?(16절)"고 묻은 뒤 "진실하고 의로우냐?(19절)"고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과연 "진실한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를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겜 사람들처럼 인정에 끌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뤄주실 것입니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부 오전 9:00/11:00
한아래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예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예 8:00 분당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9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김민재 담임목사**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신원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0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광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랑과 감동이라는 주님의 부름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래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한국 동아일보와 HQ 헬스/HQ 산삼 대표 최창수 박사와 함께 미국산삼 동행 집중 취재



미국 야생 산삼

제가 한 뿌리 한 뿌리 정성스럽게 갓습니다!

특가세일!

미국 야생산삼
1 파운드 = \$1,000
 (특대 4뿌리+ 대+ 중 사이즈 산삼 - 454그램)

+ 특별 선물
 구연산, 소금(\$120상당) 무료 증정
작년 가격보다
50% 이하의 파격적 가격

미국 야생산삼 도매가 최대 유통회사로서 산삼의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한국 동아일보가 파견한 특별 취재팀과 함께 미국 산삼의 대량 서식지들을 탐사하면서 심마니들과 딜러들의 채취와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산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한국에서의 미국 산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8일 동안 미국 동부 아팔라치안 산맥의 산삼 서식지 중 NY, VA, NC 주 등 여러 주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왼쪽 맨 밑의 사진은 수많은 심마니들과 함께 채취한 야생산삼들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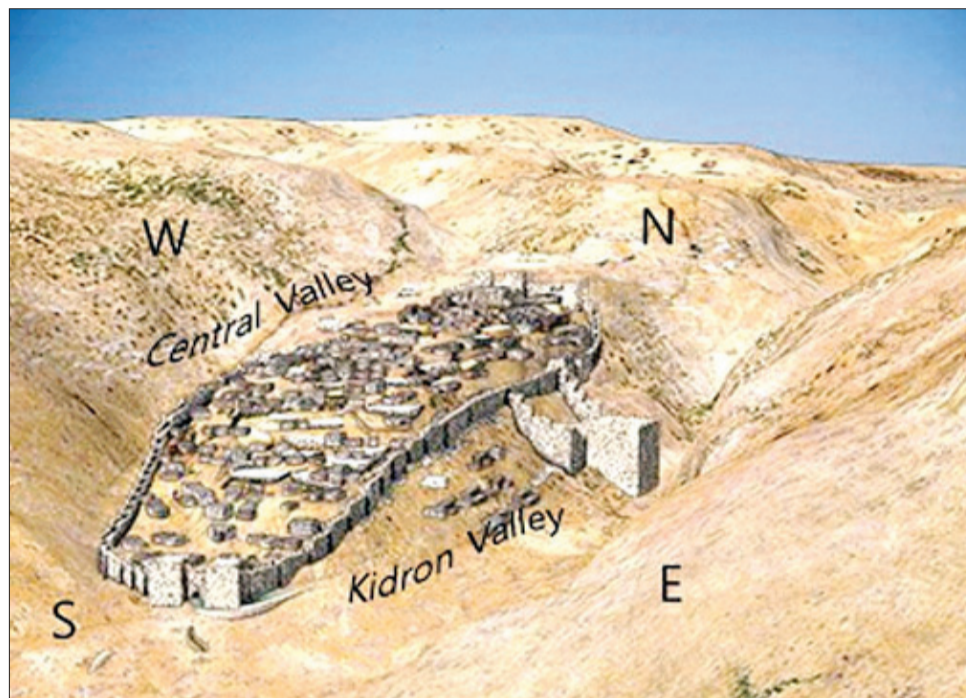
Life



이스라엘 탐방

다윗 시대 : PAX Israel

사료는 존재하지 않아... “역사적 상상력에 불과” 주장 제기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 사이의 다윗성을 잘 볼 수 있다. 왼쪽 사진에서 N이라고 표시된 곳은 성전산이고, E라고 표시된 곳은 감람산이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역대상 15:1)

예루살렘은 해발 약 700-800m의 높은 산지에 위치한다.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로 감람산과 유대 광야가 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과 서쪽에는 힌놈의 골짜기가 위치한다.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 사이에 중앙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 사이의 남북으로 좁고 긴 지역이 다윗성이다. 다윗성의 크기는 25-30 두남(dunam / 10-12 에이커)이다.

1두남(Dunam)은 1,000㎡로 1두남에 거주할 수 있는 평균 인구는 25-30명이다. 성의 규모로 보아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는 약 625명에서 900명에 달했다. 다윗은 이곳에 자기 궁전을 세웠다. 다윗 궁전은 2005년 에일랏 마자르의 발굴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쓴 '다윗 궁전이 발견되다' 글을 참고하면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다윗성의 한 곳을 예비하고, 그곳에 장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두었다: 다윗이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뭘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시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즐기며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하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대상 15:2-16:36).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블레셋의 영향력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적극 도우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였다.

과거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졌지만, 성막은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다: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대상 16:40).

기브온은 모퉁에서 Giv'on으로 표시되었는데,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은 현대 아랍 마을 el-Jib를 가리킨다. el-Jib에서 기브온(Gibeon)이란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브온은 1956-1962년 제임스 프리차드(James Pritchard)가 발굴하였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주전 8-7세기에 속한 63개의 포도 저장고(약 19,000 갤런의 포도주를 저장)와, 직경 40피트 깊이 35피트의 우물을 발굴하였다. 이 우물은 사무엘하 2:13의 기브온 못가로 유력하다. 이곳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간의 싸움이 있었다.

기브온 산당의 위치는 기브온 약간 남쪽에 위치한 나비 사무엘(Nabi Samuel)이 가장 유력시된다. 이곳은 근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다. 모퉁에서 기브온 산당은 Nabi Shamuel로 표시되었다. 다윗성에서 직선거리로 약 8km


에 이르지만, 골짜기들이 있어 직접 갈 수는 없었고 우회해야만 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대상 16:43)



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전)4X4 지프를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모든 성경적인 유적들을 탐방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기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을 받는 목회자(선교사)라면 영적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하고 구령성공을 위한 사명의지가 투철하여 금식기도하며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생의 사명의지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확장을 위해 애간장 태우며 노심초사 하시는 참된목자, 선한 사역자라면, 요즘같이 교계가 교리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하여 교회가 침체한채 목회자들마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설교와 목회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절대주권적 권위의 존엄을 훼손내지 못하는 것같이 교회마저 세속화 추세로 변질해가는 차제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한 영감적 체질신앙은 지금도 진리정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된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 구령성공을 위해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실증적 목회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생생한 체험, 그 중 일부의 내용이 본 책에 담겨있습니다.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의자로 많은 구령성공을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말기신 사역의 영적성공을 위해 진중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제8차 지킴대회’ 올해는 로체스터... 12월 25~28일

1·2세간 연합 선교 결단 유도

한인 디아스포라 2세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 헌신된 미전도 종족 사역자로 결단케 하는 '2013 로체스터 지킴대회'가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GKYM USA본부는 9월 27일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 개요를

설명하고, 올해도 한인 청년들이 대거 결단하는 귀한 대회가 될 것을 기대했다.

올해 지킴대회의 주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A Voice in the Desert)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청년들의 가슴에 깊이 심는다는 기도제목으로 올해의 지킴대회의 주제가 정해졌다.

주강사로는 마이클 오, 스티브 더글라스, 로렌 커닝햄 등 미국의 저명한 1세대 지도자들이 참여하며, 특별히 올

해는 김은열 목사, 마크최 목사 등 뉴욕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2세대 목회자들의 강사의 참여도 주목된다. 워싱턴 스타필드와 김정화 등의 인기 크리스천들도 참여한다.

매년 대회를 통해 한인 청년들의 선교 헌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지킴대회는, 1세대가 주축이 돼 태동된 이후 2세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2세에 의한, 2세를 위한 대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올해는 1세대 선교운

동인 KWMC의 의장단이 모두 공동회장으로 참여하면서 1세대와 2세대의 아름다운 연합을 도모했다. 장영춘 목사, 고석희 목사, 김남수 목사, 이승종 목사, 최영철 목사, 한기홍 목사, 호성기 목사 등이다.

이밖에도 공동준비위원장과 토론토, 런던, 워싱턴 등 각 지역별 대표목사가 세워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은열 목사가 이번 대회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했다. 김은열 목사는 "지킴운동은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연합운동으로서, 차세대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고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 과업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나이아가라에서 시작된 지킴대회는 매년 3~4천여명의 한인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를 결단하는 대회로 이어져왔다.

북미에서만 진행돼 왔던 지킴대회는 올해 로체스터지역 대회를 가진 이후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원 기자



시애틀 1.5, 2세 한인 청소년 부흥 비결은... 멘토십과 연합사역

한인 청년세대 부흥... 고무적 현상 지속적 투자와 올바른 멘토링 필요

시애틀 한인 2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인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을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중·고등학교, 대학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역자로 헌신하겠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교회에서 치유 받고, 예배를 통해 안정감을 추구하는 한인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연합 사역을 꾸준히 진행했던 청소년 사역자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애틀 지역 한인 교회 산하 영어부 목회자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각 교회의 담을 허물고, 청소년들에게 개인과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둘 것을 당부해왔다. 영어부 사역자들은 일시적으로 예

배인원이 증가되는데 사역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꾸준한 멘토십으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방향을 맞춰왔다.

또한 영어권 청소년 목회를 각 교회별 사역이 아닌 연합 사역으로 여겨왔다. 이런 목회 방침으로 사역자들은 시애틀 지역 각 교회 영어부 예배를 돌아가면서 인도하는 '교환 설교'를 시도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시애틀 전 지역 2세, 1.5세 청소년들이 모이는 라이즈 연합 찬양 집회, 주빌리 연합 찬양 집회를 정례화 하는 성과를 얻었다.

청소년들은 찬양 집회와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도 같은 아메리칸 드림이 시애틀과 미국의 회복, 전 세계 복음화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옮겨지는 계기

도 마련할 수 있었다.

뉴비전교회 EM 윤태진 목사는 "그동안 시애틀 지역 EM 사역자들은 연합을 강조하면서, 시애틀 지역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목적으로 서로 도우며 힘을 모아 왔다"며 "시간이 갈수록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1.5세 2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한인 청소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연합 사역의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라이즈 찬양집회는 개학 후 각 중·고등학교 리더를 중심으로 한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도모임을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라이즈 찬양 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온누리교회 EM 제임스 김 목사는 "라이즈 찬양집회는 기독교의 의미가 퇴색되는 미국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부흥을 기도하는 운동"

이라며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은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오는 회개와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고, 라이즈는 한인 청소년 크리스천 리더 연합을 위한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시애틀연합장로교회 EM 브라이언 한 목사는 "한인 청소년들은 미국에서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열정을 회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비전에 대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평소 청소년들에게 복

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 교계 지도자들은 "청소년 부흥은 기독교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시애틀 지역 한인 청소년들의 부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사회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와 올바른 신앙지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브라이언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국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체질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 입니다



신제품
소비자공급가 \$76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당뇨 프로-지 임상 연구소
1543 Olympic Blvd, Suite 505
Los Angeles, CA 90015
매주 토요일 당뇨세미나 실시

213.434.1170

한국교회사 이야기

한국에 들어 온 첫 개신교도는 누구일까?



김인수 목사
미주장신대 전 총장

그동안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기술하기 전, 먼저 천주교회의 역사 중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거론했다. 이본 회부터 개신교의 역사로 들어가기로 한다.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 온 개신교인이 누구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개신교인이 들어 왔다고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두말 할 것 없이 한국에 처음 들어 온 개신교도는 서양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처음으로 도래한 서양 사람이 누구냐를 살펴봐야 한다.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서양 사람의 한국 도래는 1582년(선조 15년), 제주도에 표착한 마리아(Ma Ri-I: 馬里伊)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그 후 가톨릭 성직자로서

세스페데스(G. Cespedes)가 임진왜란 때 종군신부로 왔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개신교 신자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627년(인조 5년)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J. J. Wetevree, 미국명 John Wetteree: 朴燕 1595-?)가 일행 두 사람과 함께 대만을 거쳐 일본 장기(長崎)로 항해하다 배가 난파되어 전라도 해안에 표착(漂着)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근세에 이르러 세계의 해상권을 쥐고 교역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이 나라는 유럽 제국 전체의 상선 75%를 차지하는 약 3만 척을 갖고 세계 무역에 앞장서고 있었다.

따라서 항해가 잦은 네덜란드 인들은 낯선 해역에서 난파되는 경우가 흔했다. 네덜란드 군함 오더커레스(Auderkeres) 호가 조선 근해를 여행하다, 물을 얻기 위해 벨테브레와 두 사람을 상륙시켰는데 관리들은 이들을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관원들에게 억류된 벨테브레 일행은 서울로 압송된 후 군대에 편입되어 병자호란에 참전하였다. 이 전쟁에서 두 사람은 전사했고, 살아남은 벨테브레는 그 전공을 인정받아 한국 여자와 결혼이 허락되어 1남 1녀를 낳았

다. 따라서 그는 한국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고, 최초의 서양 혼혈아를 낳은 기록을 남겼다. 그는 군대에 편입되어 대포 제작에 협력하였고 가끔 표도(漂到)해 오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통역관 일을 맡았다. 벨테브레가 개신교 신자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아직 찾을 수 없다. 다만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였고 그 국민들은 거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자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그에 관한 몇 가지 기록들은 그가 신자였음을 증명해 준다. 다만 그는 선교사가 아니었으므로 전도를 한 흔적은 볼 수 없다. 그는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벨테브레 다음으로 한국에 온 서양인은 1653년(효종 4년) 동아시아에 교역을 위해 약재(藥材), 녹피(鹿皮) 등을 실은 스파베(Spar-wehr: Sparrow Hawk) 호를 타고 일본 장기(長崎)로 가다 폭풍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한 하멜(Hendrik Hamel, 哈梅兒) 일행이었다. 그들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난파되어 28명은 익사하고 36명이 화순포(和順浦)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의 심문을 받았으나 말이 통하지 않자, 서울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서울에서는 통역관으로 벨테브레를 내려 보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하멜 일행은 통역관으로 온 사람이 자기들과 같은 나라 네

덜란드인임을 알고 서로 부둥켜안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들은 이듬해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호송 도중 몇 명은 목숨을 잃었고, 서울에 도착한 나머지 인원들은 훈련도감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탈출을 꾀했다는 이유로 전라병영 강진(康津)에 유배되어 잡역에 종사하다가 다시 전라좌수영(여수)으로 호송되어 같은 일을 하였다. 하멜은 내심 바닷가에 온 것을 기뻐하면서 일본으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드디어 1666년(현종 7년) 9월 하멜과 일행 여덟 명이 야음을 타 선박으로 탈주하여 일본 장기(長崎)에 도착하였으니, 실로 억류생활 13년 만의 일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商館)의 주선으로 1668년 7월,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도착하였다. 하멜은 고국에 돌아간 후, 「표류기」(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on the Coast of the Isle of Quelpart)와 「한국에 대한 기술(記述)」(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Corea)을 저술하였다.

「표류기」는 하멜 일행이 항해 중 표류하게 된 경위와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탈주와 귀환에 대한 사실을 적은 것이고, 「한국에 대한 기술」은 한국의 지리, 기후, 토산물, 정치, 종교, 사회풍습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되자 당시 유럽에서는 동양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때여서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읽혀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이 책은 불어, 영어, 독어로 번역되어 유럽 대륙에서 폭넓게 보급되었다. 따라서 하멜의 책들로 인해 한국이 유럽에 널리 소개되었고, 또한 이 책들은 한국을 소개하는 유일한 책들이 되었다.

하멜이 개신교도였다는 사실은 그의 「표류기」 끝 부분의 기록에서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살아 돌아온 우리 9명은 13년 28일에 걸친 긴 포로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였으며, 아울러 뒤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불쌍한 동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였다.”

이 글에 나타난 하멜의 무사 탈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남아 있는 동료들을 위한 기도는 그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하멜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도라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전도를 하거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증거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멜은 한국 개신교사에 주목할 만한 큰 족적을 남기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책을 통해 한국을 구라파에 소개한 일과,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도라는 사실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다.(계속)

전문 바보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전문(專門)’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은 할 줄 모르는 ‘전문 바보’가 됩니다. 과학화되고 세분화된 이 시대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매달리다보면 전문가라는 이름의 ‘바보’가 됩니다.

한국의 코미디 역사 속에는 항상 대를 이어 팔푼이 짓을 하는 ‘바보’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실이’ 배삼룡 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보 전문가였습니다. 아주 일, 심형래, 그리고 ‘맹구’의 이창훈 씨가 그 뒤를 이어 바보 연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바보짓을 정말 바보들보다도 더 바보스럽게 잘 했습니다. 얼마나 바보가 되려고 노력했으면, 그렇게 멋진 바보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낸 천재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도 여전히 바보로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바보 연기 외에는 다른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보 역만 하다 보니, 정말 바보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사가 그에게는 자신이 읽은 그 책 한권으로 다 결정되고 정리됩니다. 갈등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책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전에는 확신이 있는 외골수의 사람들이 좋았는데, 살아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겸허한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 공과대학교, 나 잘난 과’에서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고 ‘갈

릴리 수산대학교, 그물질과’에서 무더기로 어부들을 뽑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보다는 허드렛일로 다져진 어부들이 훗날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이 되었을 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다고 간파하신 것입니다. 다양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리없이 더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골수적인 ‘전문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 일들을 연습해야 하고 가슴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들의 신

중함을 배워야 하고, 노인들은 젊은이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영역에 갇혀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테네의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철학을 논하는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군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경험주의 철학자로 널리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그는 영국 최고의 대법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도 의료 선교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는 뛰어난 음악 연주자였고, 신학자였으며, 뛰어난 역사학자였습니다. 한 틀에 매이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새롭게 갈고 닦는 노력만이 ‘전문 바보’를 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문교회 5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저희 동문교회는 김상호 담임목사님의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자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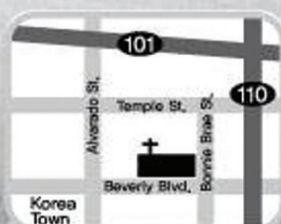
동문교회 성도일동

일시: 2013년 10월 6일(주일) 오후 3시

장소: 동문교회 본당



동문교회
EAST G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전화번호 (213)483-6625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홈페이지: www.egkpc.org



예배안내

주일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영아,유치부: 주일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오전 9:30
유년부: 주일오전 11:00
중고등부(EM): 주일오전 11:00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을 '교회 정문' 에 못 박았을까

사료는 존재하지 않아... "역사적 상상력에 불과" 주장 제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쯤 되면 '한국교회'를 위한 95개조 제안, '교회 개혁을 위한 95개조 반박문' 따위의 글이 발표되거나 신학교 게시판에 내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종교개혁의 기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정문에 '면죄부'를 비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된 것에서 유래된 '연례행사'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수정주의 해석'이 제기됐고, '사건'의 실체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일부 학자들은 "루터가 교회 정문에 논제를 못 박았다고 소개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면서, "작가들이 나름대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극적으로 묘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이를 증명할 당대 기록은 요하네스 슈나이더(Johannes Schneider)의 것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가 남긴 글에는 라틴어 '메 테스테(me teste)', 즉 '내가 증언할 수 있는대로'라는 표현이 있어 직접 목격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한스 폴츠(Hans Foltz)라는 루터학자가 1961년 슈나이더의 육필 원고를 확인한 후, "원본에는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문을 학계에 발표했다. 알고 보니, 해당 라틴어는 '메 테스테'가 아니라 '모데스테(modeste)', 곧 '조심스러운 형태로'였다는 것이다. '모데스테'로 다시 슈나이더의 글을 읽어 보면 이렇다. "1517년 루터는 엘베 강변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의 오랜 관습에 따라 모종의 명제를 논쟁용으로 제출했으나, 너무나 조심스러운 형태라서(modeste) 누군가를 비방·중상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루터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글도 아니었고, 이외에도 슈나이더의 글 어디에서도 루터가 직접 망치를 갖고 교회 정문에 논제를 못 박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이 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급진적 종교개혁을 꿈꾸지 않았고, 루터 자신이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못을 박고 안 박고의 무엇이 중요하랴. 루터가 면죄부에 불만을 가졌고, 이에 의해 종교개혁이 촉발된

을 읽어 보면 이렇다. "1517년 루터는 엘베 강변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의 오랜 관습에 따라 모종의 명제를 논쟁용으로 제출했으나, 너무나 조심스러운 형태라서(modeste) 누군가를 비방·중상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루터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글도 아니었고, 이외에도 슈나이더의 글 어디에서도 루터가 직접 망치를 갖고 교회 정문에 논제를 못 박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이 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급진적 종교개혁을 꿈꾸지 않았고, 루터 자신이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못을 박고 안 박고의 무엇이 중요하랴. 루터가 면죄부에 불만을 가졌고, 이에 의해 종교개혁이 촉발된

을 읽어 보면 이렇다. "1517년 루터는 엘베 강변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의 오랜 관습에 따라 모종의 명제를 논쟁용으로 제출했으나, 너무나 조심스러운 형태라서(modeste) 누군가를 비방·중상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루터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글도 아니었고, 이외에도 슈나이더의 글 어디에서도 루터가 직접 망치를 갖고 교회 정문에 논제를 못 박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이 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급진적 종교개혁을 꿈꾸지 않았고, 루터 자신이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못을 박고 안 박고의 무엇이 중요하랴. 루터가 면죄부에 불만을 가졌고, 이에 의해 종교개혁이 촉발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기독교 역사 유재덕 | 브니엘 | 392쪽

주어보거나(1부 '오늘날과 비슷한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크고 작은 역사적 오류들을 검토하고(2부 '위험한 기독교 역사'), 우리가 가진 역사적 상식을 뒤집어 보거나(3부 '거꾸로 보는 기독교 역사') 평소 알고 싶었던 문제들(4부 '궁금한 기독교 역사')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저자인 유재덕 교수(서울신대)는 "기독교의 지나간 역사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할 때 예상치 못한 눈길로 바라보게 되고, 앞으로의 일들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해진다"며 "그런 지혜로운 역사적 안목을 갖추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앞서 살다간 이들 덕분이었음을 깨닫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제는 '재미에 지식을 더하는 흥미로운 기독교 이야기'.

'진실을 믿으면 현실이 바뀐다' 목회자가 쓴 건강 베스트셀러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라면, 치유의 희망도 여기에

지난 2011년 출간 이래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힐링 코드(시공사)> 최신 개정증보판이 발간됐다. 이번 판에는 11장 '마음 문제 탐지법을 이용해 문제 알아내기'가 추가됐다.

저자인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는 목회자이자 심리학자로, 12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아이 앞에서 자살 시도까지 벌인 아내를 치유하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으나 아내의 병세는 날로 악화돼 갔다. 그러던 중 출장을 떠난 로이드 박사는 아내의 다급한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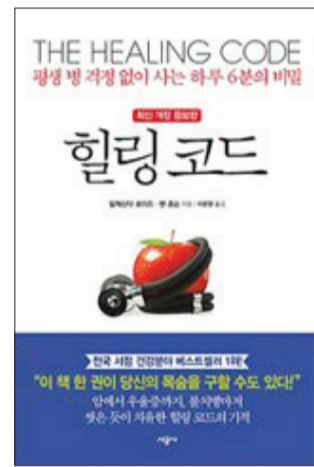
나뉘게서 생생히 보여주셨고 그대로 실천하자 회복됐다고 한다.

로이드 박사는 자신이 아내에게 실천한 방법을 '힐링 코드'라 이름지은 후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했고, 많은 이들이 회복을 체험했다. 이 책은 '힐링 코드'를 통해 루게릭병에서 나음을 입은 외과의사인 벤 존슨 박사와 함께 집필했다. 이러한 내용은 김진홍 목사가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자신의 '두레 금식수련' 프로그램에서도 적용하면서 교계에도 잘 알려졌다.

간단히 말하면 '힐링 코드'는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이고, 모든 문제는 에너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에너

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면, 에너지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도 치유할 수 있다. 저자들은 "대처는 치유가 아니고, 힐링 코드는 체내의 에너지 패턴을 바꾸는 양자물리학 치유체계"라며 "치유의 증거는 주요 질병에서 인간 관계나 직업, 성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한다.

스트레스도 우리 몸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파괴적인 에너지 진동 수와 공명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힐링 코드'는 이러한 파괴적인 세포기억을 치유함으로써, 파괴적인 감정이나 믿음,



힐링 코드 알렉산더 로이드 등 | 시공사 | 312쪽

태도와 사고를 치유하여 육체의 질병까지 낫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11장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해로운 행동, 잘못된 믿음 등 '마음 문제 탐지법'이 평가하는 12범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것들이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는데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자신이 고안한 '힐링 코드'를 하루 6분만 실천할 경우, 평생 병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힐링 코드'의 4대 치유센터는 콧등과 후골, 턱과 관자놀이이며, 열핏수지침의 느낌도 있다.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영방송국4층)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생생한 기사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정직한 신문

기독교일보

신간 흥성사, '더 있다' 및 '성서 인물' 시리즈 발간

성경 인물, 행간, 사연 속에 '더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구약에, 신약에 더 있다.

(사진 왼쪽)오경준 목사 (오른쪽)이상명 총장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구약·신약

흥성사에서 평신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들이 잇따라 나왔다. 오경준 목사(뉴저지 좋은교회)의 성경탐구 시리즈 <신약에 더 있다>·<구약에 더 있다>와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의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구약>·<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신약> 등이 그것.

행간 속에, 사연 속에 '더 있다'

신약에 더 있다

오경준 | 흥성사 | 280쪽

구약에 더 있다

오경준 | 흥성사 | 272쪽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2004)>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2005)>를 펴낸 바 있는 오경준 목사는 이번 '더 있다' 시리즈에서 익숙하게 읽고 접하면서 문자적으로만 대해왔던 구절을 문맥과 정황을 근거로 분석·파악하는 1부 '행간 속에 더 있다'와, 설교나 신앙도서에 예화로 곧잘 등장하는 신·구약 속 사연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적용하는 2부 '사연 속에 더 있다' 등 알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행간 속에 더 있다'의 경우, 최근 나온 <구약에 더 있다>를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악과' 이야기가 '미스터리'로 등장한다. 미스터리는 총 세 가지로, '하나님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어디로?', '선악을 아는 것은 해로운가?' 등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 오 목사는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규범'이자 복된 약속을 보증하는 일종의 '징표'임을 알 수 있다"며 "선악과에 내재된 처벌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을 놓으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하신 선물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것,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을 뛰어넘는 가능성과 의지"라며 "전지(全知)라는 개념을 단순명제화시켜 '모든 것을 점명처럼 알아맞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가능성'의 영역이 빠져버린다"고 했다.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셨듯 스스로를 낮추셔서 불안정한 인간이 선택할 미래의 일들을 결정론에서 풀어 무한한 가능성 속에 흠여 버리신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은 악을 안다 해도 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인간에게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다가보다 선만 존재하던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는 의미"라며 "통제할 능력 없이 악의 세계를 수용하게 된 인간의 결론은 아담과 하와의 이후 행동에서 보듯 결국 '부끄러움'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1부에서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야곱의 나이와 나그네 길' 등을, 2부에서는 '쌍둥이 얼마 리브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 '원통한 한나' 등을 들여다 본다. 앞서 나온 <신약에 더 있다>에서는 1부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등을, 2부에서는 '시니컬한 도마의 변화',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에티오피아 내시'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오경준 목사는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김승태 장로) 출판소식 8월 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집필활동의 뿌리인 '다시 성경으로(Re-Bible)' 운동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오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질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진단하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며 "성경은 교회의 중요한 한 요소가 아니

라 '모든 것'이고, 신앙의 시작과 과정, 결론이 모두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 회복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실 대부분이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에는 마음을 열고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얻고자 구절을 선별하거나 왜곡된 해석까지 하지만, 말씀이 내 삶과 생각을 바꾸려 하면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갈등 지점에서 시작된다"며 "나의 사건이 배제된 성경 자체의 순수한 의미를 찾고, 그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키려 할 때 자아를 꺾고 굴복하는 것이 진정 '성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성서 인물 통한 역사(歷史) 우리 삶을 통해 역사(後事)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신약

이상명 | 흥성사 | 464쪽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구약

이상명 | 흥성사 | 464쪽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목사는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시리즈 두 권에서 각각 구약 77명, 신약 50명의 주요 성경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두 권은 모두 같은 페이지(464쪽)에서 끝난다는 특징이 있다. 미주중앙일보에 '성경 인물 열전'으로 2년간 연재하던 칼럼을 다듬은 내용이다.

구약 편은 시대별로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부, 족장 시대, 출애굽-가나안 정착, 사사 시대,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시대 등 7부로 나눠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약 편은 유형별로 '복음의 시작-새 시대가

열린다', '순종-제자의 길을 가다', '믿음-속박으로부터 해방되다', '도전-미답의 땅을 복음으로 개척하다', '섬김-세속적 가치를 뒤엎다', '거짓-배교의 길로 가다', '탐욕-진리를 백안시하다', '용기-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다' 등 8부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그들의 드러나는 앞모습보다는 삶의 기쁨과 애환을 진하게 드러낸 뒷모습을 살짝 들춰 보는 것이 그들의 실상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라 생각했다"며 "아울러 그들을 빛바랜 사진 속 인물로만 소개하는 것도, 그들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나열하는 것도 피해 가급적 각 인물의 생애에서 하늘의 큰 울림이 있던 때를 포착하여 그 순간을 벽면의 부조처럼 처리하고 그때 그 울림의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 역사와 신화, 문화와 시사, 철학과 신학 및 종교, 영화와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에 기대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구약 편이 첫 인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소개하면서도 최민준의 시 '두메꽃'이 먼저 등장하고, 논란의 인물 '하와'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여성잡지인 '신여성' 속 문구를 통해 여성의 위대함을 선포하며,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예배 현장에도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 이신지도 모르고서 예배드리시는 '가인 콤플렉스'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약 편의 마지막 인물은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인데, 저자는 여기서 어쩌면 자신의 처지와 같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다. 신약 편에서는 '애제자'라는 이름 아래 '베일에 싸인 이름 없는 제자'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불리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이로, 일반적으로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자는 그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비추이는 스포트라이트를 돌려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

"애제자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남달랐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리더격인 베드로보다 탁월했으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로 부상한 인물이다. 그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두터운 베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감출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 예수님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면서도 요한복음의 증인인 애제자의 존재감은 오목새김으로 깊이 파서 감춘 듯하다. 이것이 깊은 통찰력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요한복음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자는 "성서는 성서 인물들의 삶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이기에, 과거를 살다 간 성서 인물들을 끊임 없이 현재로 불러내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성스러운 신앙 행위"라며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만나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성서 인물들의 이야기는 인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생생한 기호이자 단서"라고 말한다. 이대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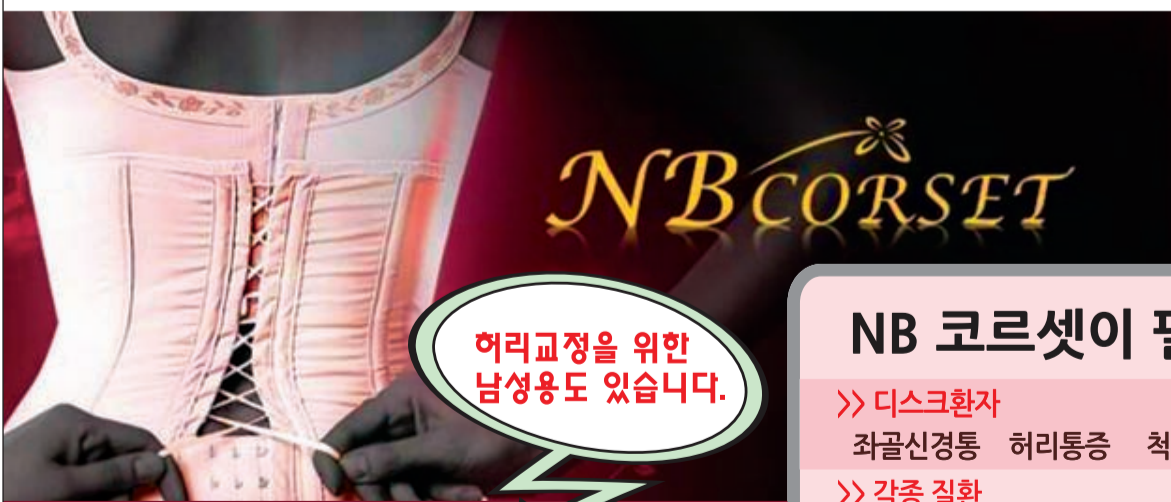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시)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여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시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시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나서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궁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one stop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美 무신론단체 창립자 “난 보수 기독교인이었다”

자유주의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

미국에서 가장 큰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이하 FFRF)' 공동 창립자인 댄 베이커(Dan Baker) 회장은 자신이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으나 5년 간의 여행을 통해서 무신론자가 됐다고 최근 밝혔다.

베이커 회장은 한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으나, 현재는 교회와 정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이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통화에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문구가 정교본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신의 저서(Godless: How An Evangelical Preacher Became One of America's Leading Atheists)에서 5년 간의 여행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기도 한 그는, 크리스토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중생한 복음주의 크리스천에서 무신론자로 변화된 움직임의 대부분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오 하나님, 내게 의심이 있어요. 난 무신론자가 됐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떤 크리스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 자들이 기독교 교리의 거대하고 광범위한 범주에 걸처서 한 길 혹은 다른 길로 왔다갔다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4-5년 정도가 걸린 나의 이동은, 매우 극적인 쪽에서 점차 다른 쪽으로 건너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러한 의심이 무신론으로 이어질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

히려 그 의심들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분법적, 절대적 근본주의자의 사고가 줄어들면서 나는 보다 미묘해지고, 중도적이 되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오순절과 혹은 지나친 근본주의자들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한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너무 단순해지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모든 과정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가 가장 처음 가졌던 의문은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것이었다. 과거 그가 여행을 다니던 중 참석했던 한 교회 예배에서, 목사는 그에게 "일부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가 문자적·역사적으로 존재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베이커 회장은 "그것은 내게 매우 끔찍한 것이고, 이단이었다. 나는 많은 자유주의 크리스천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난 근본주의자였고,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른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정말 괴롭게 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이커 회장은 성경에 대해 다른 해석을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고 선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들과 교제를 끊지 않았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 동의하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는 말했다.

베이커 회장에게 이것은 인내를

향한 걸음이었다. 베이커 회장은 "나의 생각이 자유로워질수록,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흑백논리로 절대적이 될 필요도 없었다"면서 "성경은 여러분이 미적지근하다면, 차든지 더웁든지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입에서 뱉는다고 한다. 나는 예수님이 참 혹은 거짓, 옳고 그름 즉 혹은 아니 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회색 지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행동으로 왔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회색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담과 하와가 진짜 생존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의 기독교적인 믿음이 성숙해 간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 비유다. 초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화였다. 인간의 타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타락의 기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자 만들어나신 이야기"라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베이커 회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와 같은, 이생에서의 삶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는 "5-6년 이후,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탕자가 비유에 나온 인물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 존재하지 않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다른 인물들은 어떠한가?' 질문하면서 '아훼는 어떠한가?' 묻게 됐다. 하나님 스스로도 인간 속성에 대해 중요한 도덕적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 크리스천들에 의해 창조된 문자적인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 허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실재하지 않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전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들로부터 들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 전체가 모두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인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그의 자유 의지 안에서 결정된 미래(천국과 지옥)가 변화될 수 없는가? 이 모든 영적인 대조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다.

베이커 회장은 이러한 모든 의심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게 됐다고 말했으나, 결국 1983년 그는 신앙을 떠나 무신론자가 됐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존재에 대해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 "나는 마지못해 내 마음 속으로 무신론자가 됐으나, 크리스천의 삶을 사

랑하고 나의 크리스천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한다. 나는 어떤 무신론자들도 알지 못하고, 내가 다른 무신론자들과 비슷하지도 모르겠다. 무신론자라는 말조차 싫어한다. 그러나 솔직하게 그 단어가 나를 잘 묘사하고 있다. 내가 좋은 삶든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유신론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FFRF의 회원수는 지난해만 해도 130% 가까이 늘었다. 베이커 회장은 "이는 대부분 미국의 세속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톨릭에 이어 무신론이 두번째로 큰 종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미국은 점점 비종교화되고 있으며,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모든 조사들은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종교는 바로 '무종교'"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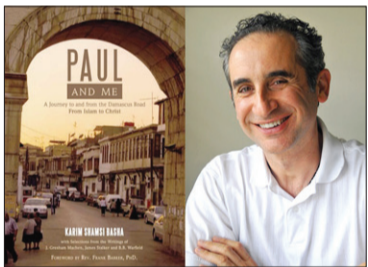
그는 이어 "기독교와 유대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와 같은 단체들은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인의 약 20%가 전반적으로 무종교인(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매우 큰 수치다. 만약 교단으로 따진다면 미국에서 가톨릭 다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회장과 그의 아내 에니 로리 게이로이는 지난 9월 27-28일 위스콘신의 메디슨 지역에서 제36회 전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세레테이나잇라이브'의 줄리아 스위니, 댄 세비지 등 유명 무신론자들도 참석했다.

시리아 출신 무슬림, 기적적으로 생존 후 회심

지난 달 '바울과 나(Paul and Me)' 출간



레자 아슬란

카림 샴시-바샤는 1992년 뇌동맥에 이상이 생겨 거의 한 달 간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여전히 무슬림이었다. 그는 이후 거의 완치됐고, 신경외과 의사는 이러한 그의 상태를 보고 "매우 드문 일이다. 어떻게 살아남게 됐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촉매제가 됐다. 샴시-바샤는 그의 책 '바울과 나(Paul and Me)'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현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다.

지난 달 출간된 책은 그의 삶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사도 바울에 대한 다양한 신학자들의 해석도 담고 있다.

저자는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다메섹(오늘날 다마스쿠스) 지역에 위치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

는 모든 종교에 대해 포용적이었으며 그와 가장 친한 친구는 크리스천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집에서 자주 만났으며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서로를 개종시키지는 못했다.

그의 가족들은 이슬람의 율법을 잘 지킨 반면, 그는 매우 힘겨운 10대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스크에 갔다. 라마단에 맞춰 금식했다"고 그는 말했다. 부패한 아사드 정권에 실망한 그는 18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테네시 대학교에 등록하게 됐다. 그곳에서 결혼한 그는 첫째아들을 낳고 현재 살고 있는 버밍햄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는 동맥류 진단을 받게 된다.

병에서 회복된 이후,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깨닫고, 1996년 세례를 받았다. 그럼에도 온전한 회심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개종은 이후 10년 동안 진행됐다. 이혼, 아버지의 사망, 노숙자 생활, 관계성의 실패 등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2008년 나는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크리스토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회심을 보셨습니까.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비록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슬림이다. 그는 가족들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여동생과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미국으로 건너왔다.

시리아 내전 발생 당시, 샴시 바샤는 그의 여동생을 시리아에서 데려오려고 했으나 최근 미국 비자가 거절됐다. 그는 "내가 의원들에게 요청해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비자 발급이 거절된 상태"라면서 "여동생은 혼자 다마스쿠스에 머물러 있다. 최근 불에 타고 파괴된 홈스에는 아버지의 친척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강해진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 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원장 정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다양한 차량과 색상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9월의 스페셜



\$115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6,580 (STK # 549364)

PH HYUNDAI D/C	\$813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ACCENT GLS



\$142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100 (STK # 795853)

PH HYUNDAI D/C	\$1,263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2013 SONATA GLS



\$632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 069499)

PH HYUNDAI D/C	\$53,59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2013 EQUUS SIGNATURE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중개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없이 푸엔테힐스 현대를 통해 직접 구매하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